

시대를 지킨 파수망대 10명의 선한 왕들

-복음으로 여는 역대하-

역대하 14:2-5, 마태복음 1:1

정운돈 목사님

* **대하14:2-5**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 **마: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237나라에 증거하는 자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졌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미국 델러스에서 RU박사원과 RU캠퍼스 봉헌예배를 드리고 왔다. ‘하나님이 RU를 왜 저 남쪽 텍사스에 두셨는가?’ 했더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니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렸다. 그 지역이 남미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 외국인 많이 있는 곳이다. 목사님께 여쭙보니 델러스가 남쪽 구석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고 침례교지만 신앙이 있는 기독교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고 따뜻하다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완벽한 현장에 우리가 깃발을 세우게 하셨다. 제가 델러스에 있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 신학교가 히브리어, 헬리어 다 알지만 예일대학교를 나온 신학대학과 박사가 유빈이 구원의 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성경 전체의 조직신학을 이 한 판에 다 넣었냐고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메시지에서 ‘각인’에 대해서 네 강의 메시지를 하셨다. 전체 주제는 ‘각인’인데, 첫째로 7.7.7이 우리 영혼 안에 각인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외운 게 아니라 영혼에 각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삶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되는 3세팅이 각인되어야 한다. 성도님들도 파수망대를 다 세워야 하고, 목사님들은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한다. 전도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게 영적 안테나로서 하나님과 전도자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꼭 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아니라 영혼에 각인되어야 한다. 아무리 암송해도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머리에 각인되는 건 잊어버린다. 진짜 영혼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 각인되면 근심,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진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고, 그래서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일곱 램넛트가 받았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냥 아는 게 아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야 한다. 그게 각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토일시대와 세 가지 뜰,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고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각인해라. 그렇게 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복음소식을 십년 동안 하는 이유도 영혼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게 없다. RUTC도 끝까지 할 것이다. 뭘 하더라도 십년 이상 하지 않으면 전문인이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복음도 그렇다.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내 마음 속에 ‘진짜 하고 싶다,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있어야 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세계복음화를 정말 해야겠구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오늘 역대상,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다 멸망했다. 오늘도 영혼에 언약으로 말씀이 각인되시기 바란다.

우리들은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전혀 다르다. 성경 속 하나님이 세운 왕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속, 점술, 우상을 없애야 한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절대 언약이 되면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역사에 남고, 세계사에 남고,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열왕기상, 하와 역대상, 하의 역사를 통해 그 교훈을 주고 계시다. 이게 다른 역사고, 참된 역사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약이 없이 정치만 했다. 모두 다 사라졌다. 왕국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지파도 없어지고 앗수르에 의해서 나라도 없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없어도 되겠다. 우리 가문이 사라지면 되겠다. 남유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까지 그 언약과 핏줄과 전통이 흘렀던 것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 대까지 언약과 축복이 흐르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영혼 속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돈 걱정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걱정한다. 이를 위해서 사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라.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사랑을 받았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자녀는 실수하고 잘못할수록 더 기도되고 예쁘고 사랑스럽다. 부모는 자녀가 못나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언약할수록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저는 ‘예수는 내 친구’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친구가 떨어지고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진다. 하나님만 친구다. 대통령도 친구 못 만나다. 대기업 총수들도 친구 못 만나다. 제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대신 세계복음화하는 새로운 팀이 생겼다. 우리는 선교의 후원자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응답의 주역이 다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역대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역대하는 남유다의 약 20명의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은 모두 다윗 왕의 후대들이다.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하면 유다의 왕들은 모두 22명이었다. 다윗 왕의 후손, 핏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그 이면계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런 이면계약이 있어야 한다. 저도 저희 할머니의 기도로 자빠져도 잘 된다. 조상들에게 너의 후대로 세계복음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를 처음 믿는다면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 절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역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는 참된 왕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겠다, 그리스도가 너희 가문을 통해서 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다. ‘너희를 세계복음화하는 가문과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봉사해야 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신니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 쓰셔야 하는데 우리 교회와 교단을 분명히 붙잡고 쓰실 줄 믿는다.

그 언약을 붙잡은 팀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성취시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들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 갈 수 있다.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면계약을 주신다. 역대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언약을 놓칠 때가 많았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유대의 많은 왕들처럼 언약과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대기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아버지가 선택도 자식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악한 아버지에게도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안되면 손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식이 이상해도 낚되라. 그리고 빨리 장가까지 자식 많이 낳게 해라. 조금하면 불신앙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는다. 부모님이 간섭할수록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다 떠 나게 하셨다.

1. 역대하서에 기록된 전체 내용과 의미를 요약해 드리겠다.

(1) 역대하서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다. 솔로몬 왕의 가장 큰 공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흠 없이 완성한 것이었다. 역대하 8장 16절을 보겠다.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때부터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것을 완비해서 결점 없이 끝냈다. 이런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나중에 솔로몬은 타락하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다. 복음이 완벽하다. 인간의 성전은 불완전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역대하 9장 전체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크게 번성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들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24절을 보면 솔로몬 왕국에 금도 많고 금 방패도 많았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금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게 뭘 의미 할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 지를 보여 준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도전한다면 이 땅에서도 후대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다스리는 솔로몬 이상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복음화하고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

(2) 두 번째로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20명의 왕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왕들의 이름은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야,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 8대 요아스, 9대 아말랴, 10대 웃시야,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16대 요시야, 17대 여호야קים,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이다. 이 왕들의 특징은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왕은 8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다.

2. 유다의 대표적인 왕들의 공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다. 특히 시대의 파수망대의 역할을 담당한 8명의 선한 왕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 8명의 이름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말랴, 아사랴, 요담과 가장 선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다.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하면 열 명이다. 이렇게 언약을 전달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1대 르호보암 왕은 왕에 오른 초기에 어리석게도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다루겠다고 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다. 르호보암 왕은 통치 3년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지만 제위 5년에 율법과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라고 말한다. 성도들도 잘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 나갈 때 잘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려움 당할 때 붙잡는다. 그러나 좀 늦는다. 잘 나갈 때 잘 붙잡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다음은 8명의 선한 남유다 왕들의 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아사 왕은 우상숭배를 금하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 할머니를 폐위시키기도 하였다. ② 여호사밧은 우상숭배를 없애고 전 국가에 율법교사를 파송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고 이에 대하여 예후의 책망을 받았다. 잘못하면 대가 끊어질 뻔 했다. ③ 요아스는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하고 이를 위해 모금을 했다. ④ 아말랴는 전쟁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선한 왕으로 취급되었지만 왕위에 올라서는 암살당한 아버지의 복수에만 힘을 쓰고 국가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무능한 왕이었다. 조선 역사에도 보면 선진을 죽인 사람의 복수를 한 사람들이 있다. 권력과 복수를 위해 힘을 썼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능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걸 넘어 하나님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선교적 마음을 가진 나라가 없다. ⑤ 아사랴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했다. 그는 엘렛 성전을 재건했고 블레셋의 강한 성들을 정복했고 아라비아인들 물리치고 암몬 족속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래서 명성이 원방에 퍼진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대신 하려다가 만류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므로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별궁에서 외로운 삶을 보냈다. 성공하고 현금하고 장로님 되어서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대적한다면 잘못된 증직자다. 문둥병 이전에 마음이 문둥병에 걸린 상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치봉사하는 곳이 교회다. ⑥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⑦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제거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다. ⑧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산당을 다 없애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다. 유다의 선한 왕은 10명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도 크고 작은 허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작은 믿음의 실천은 시대를 지키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왕들이 없었다면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시대와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지키는 작은 파수망대의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력을 누리는 언약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다. 오력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다. 다함께 오력을 누리는 기도를 드리겠다.

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②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③ 사명 감당을 위한 강인한 체력을 주옵소서.

④ 헌당과 237선교와 RUTC운동으로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경제력을 주옵소서.

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인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10명의 유다 왕들처럼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왕이 있었지만 의로운 왕은 소수였습니다. 의로운 왕들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언약하더라도 직장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파수망대, 복음과 선교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